2012학년도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

제 1 교시

언어추론

성 명 : _____ 수험 번호 : □□ - □□□□□

1

○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문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문항을 미리 볼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이 문제지는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험이 시작되면 문항 수를 확인하십시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표기하십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와 답을 표기할 때에는 답안지 우측에 있는 '답안지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에 따라 표기하십시오.

○ 시험 시간은 **09 : 10~10 : 30 (80분)** 입니다.

○ 이 문제지는 시험 종료 후 답안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언어추론

1. 밑줄 친 말을 [ ]의 말로 바꾸어 같은 의미의 문장을 만들고자 한다. 잘못 바꾼 것은?

① 항간에는 불길한 참언(讖言)이 돌고 있었다.
→ [예언(豫言)이]

② 그녀 덕에 대형 참사를 미연(未然)에 방지했다.
→ [미구(未久)에]

③ 그 일은 촌각(寸刻)을 다투는 중요한 사안이다.
→ [경각(頃刻)을]

④ 우리는 우리 고장의 장처(長處)를 널리 알려야 한다.
→ [장점(長點)을]

⑤ 그 점은 모두(冒頭)에 밝혔으니 재론하지 않기로 한다.
→ [허두(虛頭)에]

2. 밑줄 친 단어가 의미에 맞게 쓰인 것은?

① 사장님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회사 직원들이 소슬하게 놀랐다.
② 그 남자는 키가 경둥하게 커서 어디를 가나 사람들의 눈에 뜨였다.
③ 그날 밤 우리는 자작하게 타 들어가는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았다.
④ 폐허가 된 절터에는 멀쑥하게 자란 소나무 한 그루만 남아 있었다.
⑤ 살찌기 전에는 벙벙하게 맞았던 옷들이 지금은 못 입을 정도로 작다.

3. 어법상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① 가짜 명품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럼에도 그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어서 관계 당국은 더 근본적인 해결 마련에 고민하고 있다.
② 이곳은 산호초로 가득한 높고 푸른 하늘과 옥색의 바다, 울창한 원시림 등 빼어난 자연 경관으로 유명하다. 일상에서 쌓인 피로는 여기서 보내는 짧은 휴식만으로도 회복될 수 있다.
③ 노동부는 근골격계 질환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을 고시하였다. 하루에 25회 이상 10킬로그램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나 어깨 위 그리고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은 그중 하나이다.
④ 수사가 본격화되었으나 새로운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사건의 규모가 예상보다 컸다는 예측이 제기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의혹의 핵심은 보이지 않는 실체의 개입설로 모아졌다.
⑤ 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한 형은 아버지의 자랑거리였다. 남들이 팔불출이라고 할 것 같아 내놓고 잘난 체하기는 쑥스럽다고 하시면서도, 아버지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항상 형 얘기만 하셨다.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스팸 메일이란 대량으로 반복해서 전달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메일을 가리킨다. 대부분의 스팸 메일은 그 내용이 유해한 음란물이나 기만적인 표현과 관련된 것이어서, 수신자들은 심리적 불쾌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됨은 물론, 개인 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또한 스팸 메일은 정보 통신 서비스 사업자를 통해 전달되므로 발송에 따른 비용을 정보 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부담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스팸 메일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스팸 메일 금지와 관련해서는 복잡한 문제들이 존재한다. 우선, 스팸 메일도 일종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따르면 스팸 메일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발송자에 대한 과잉 규제에 해당한다. 또 스팸 메일이 수신자의 알 권리 행사와 자기 정보 통제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즉 스팸 메일에는 수신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수신자에게 이를 전달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수신자가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추구하고 스스로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스팸 메일 금지는 개인적 기본권 차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논쟁도 야기한다. 스팸 메일을 기업의 기본적 영업 행위의 하나인 광고라고 본다면 스팸 메일을 금지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상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스팸 메일은 광고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스팸 메일 금지는 대기업보다 소기업의 영업 기회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때문에 스팸 메일 규제와 관련한 논의는 스팸 메일 발송자의 표현의 자유와 수신자의 인격권 중 어느 것을 우위에 둘 것인가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스팸 메일의 규제 방식은 옵트인(opt-in) 방식과 옵트아웃(opt-out) 방식으로 대별된다. 전자는 광고성 메일을 금지하지는 않되 수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국 등 EU 국가들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수신 동의 과정에서 발송자와 수신자 양자에게 모두 비용이 발생하며, 시행 이후에도 스팸 메일이 줄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어 규제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옵트아웃 방식은 일단 스팸 메일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하되 수신자가 이를 거부하면 이후에는 메일을 재발송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으로,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스팸 메일과 일반적 광고 메일의 선별이 어렵고, 수신자가 수신 거부를 하는 데 따르는 불편과 비용을 초래하며 불법적으로 재발송되는 메일을 통제하기 힘들다. 또한 육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이 스팸 메일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옵트아웃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옵트아웃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 법은 광고 정보 전달 시 정보의 유형 및 주요 내용, 발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메일 주소를 수집한 출처, 그리고 수신 거부의 의사 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 유해물 광고 메일 발송을 금지하고, 무단으로 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통해 영리성 광고 메일을 발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형사적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스팸 메일 발송자들이 이러한 규정들을 교묘히 피해 가며 발송할 방법을 개발하고 있어, 법적 규제만으로는 효과적인 스팸 메일 규제가 어렵고 수신자가 민사상 피해 구제를 받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옵트인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4. 위 글에 드러난 쟁점이 아닌 것은?

① 스팸 메일은 헌법상 보호 대상으로 볼 수 있는가.
② 스팸 메일의 근절을 위하여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
③ 스팸 메일의 순기능과 역기능 사이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④ 스팸 메일의 발송자와 수신자의 권리가 충돌할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⑤ 스팸 메일 규제와 관련하여 기업의 영업 자유를 어느 정도까지 보호할 것인가.

5. 옵트인 방식을 도입하고자 할 때 그 이유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옵트인은 수신자의 인격권 보호에 효과적이다.
② 옵트인은 수신에 동의하는 데 따르는 수신자의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다.
③ 옵트아웃은 스팸 메일과 일반적 광고 메일을 구별하여 처리하기 어렵다.
④ 옵트아웃은 수신 거부 절차가 불편하고 재발송 방지에 효과적이지 않다.
⑤ 옵트아웃은 청소년들을 유해한 광고 정보로부터 보호하는 데 취약할 수 있다.

6. 우리나라의 스팸 메일 규제에 대한 비판으로 타당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수신자는 스팸 메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구제받기가 용이하지 않다.
ㄴ. 수신자가 수신 거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소년 유해물 광고 메일을 반복적으로 발송한 자를 처벌할 수 없다.
ㄷ. 광고 정보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교묘하게 피하여 전달하는 스팸 메일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
ㄹ. 수신자가 수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기술적 방법을 통해 스팸 메일을 발송한다고 해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4 언어추론

[7~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 아미노산이 연속적으로 연결되면 끈 모양의 폴리펩티드가 된다. 이 폴리펩티드는 꺾어지기도 하고, 둘둘 말리기도 하면서 3차원적인 입체 구조를 만들게 되는데 이 과정을 폴딩(folding)이라고 하며, 이렇게 입체 구조로 만들어진 폴리펩티드를 단백질이라고 부른다. 각각의 단백질은 특정한 3차원 구조를 제대로 갖추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단백질 생산에는 리보솜과 샤페론 등이 관여한다. 리보솜은 세포핵이 제공하는 유전자의 서열 정보에 따라 세포 내에서 만들어진 개개의 아미노산을 연결해 폴리펩티드를 만든다.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폴리펩티드 중에서, 일부는 자발적으로 폴딩하여 기능성 단백질이 되고, 스스로 폴딩하지 못하는 폴리펩티드는 샤페론의 도움을 받아 정상적으로 폴딩된다. 세포 내에는 다양한 종류의 샤페론이 존재하며, 그 각각마다 작용하는 폴리펩티드가 다르다.

대부분의 경우 폴리펩티드의 폴딩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폴리펩티드가 폴딩하지 못하고 서로 얽혀 응집된 덩어리 형태를 띤다. 또한 세포에 열, 중금속, 화학 물질 등과 같은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폴딩 중이거나 이미 형성된 단백질의 구조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비정상적인 3차원 구조로 변하는 미스폴딩(misfolding) 현상이나 3차원 구조가 완전히 붕괴되어 풀리는 언폴딩(unfolding)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처럼 구조가 변한 단백질을 변성 단백질이라고 한다. 변성 단백질은 입체 구조가 흐트러져서 소수성(疏水性) 아미노산이 분자 표면에 노출된 형태로 바뀐 것이 많다. 변성 단백질 분자 표면에 노출된 소수성 아미노산들은 서로 당기는 상호 작용을 한다. 그 결과로 변성 단백질들이 모여 물에 녹지 않는 응집체가 형성된다. 응집체의 형성 과정은 대부분 비가역적이어서 일단 형성된 응집체는 쉽게 응집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 응집체를 형성하기 전에, 응집체 형성을 저해하는 샤페론에 의해 변성 단백질이 원래 구조로 회복되는 것이 리폴딩(refolding)이다. 리폴딩은 실험 상황에서는 샤페론 없이도 재현할 수 있다.

세포에는 잘못 생산된 단백질을 제거하거나 변성 단백질의 재생과 분해 작용을 담당하는 품질 관리 체계가 존재한다. 품질 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 중 하나인 소포체 내부에 변성 단백질이 축적되면, 이것은 소포체에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 소포체 스트레스의 해소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소포체에 변성 단백질이 축적되면, ATF6가 활성화되어 소포체 샤페론의 생산을 촉진시키고, 샤페론은 리폴딩을 통해 변성 단백질을 정상 단백질로 재생한다. 재생이 되지 못하는 변성 단백질은, IRE1과 XBP-1의 연쇄적인 활성화로 단백질 분해 기구가 활성화되어 분해된다. 이 분해 과정은 재생이 어려운 변성 단백질을 세포질로 역수송하여 분해되도록 하는 것으로, 세포질에 존재하는 유비퀴틴-프로테아좀계에서 일어난다. 또한 소포체에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이 유지되어 변성 단백질의 축적이 지속되면, PERK의 활성화가 일어나고 이어서 단백질 합성 개시 인자인 eIF2α를 불활성화(인산화)하여 리보솜의 단백질 합성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리보솜의 단백질 합성 기능을 멈추게 해 변성 단백질 생산량 자체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도 단백질의 품질 관리가 어려워지면 세포는 다음 단계의 수단으로 스스로 사멸하는 길을 택하기도 한다.

7.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단백질의 구조 변성은 세포의 생존을 위협한다.
② 리보솜은 유전자 서열 정보를 받아 단백질 생산에 관여한다.
③ 세포 내 단백질들의 폴딩은 세포에 가해진 열에 영향을 받는다.
④ 응집체를 형성한 세포 내 폴리펩티드는 자발적으로 리폴딩한다.
⑤ 단백질이 정상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단백질의 입체 구조에 의존한다.

8. ㉠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때, 그 원인이 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소포체의 XBP-1의 활성화
ㄴ. 유비퀴틴-프로테아좀계의 손실
ㄷ. 소포체 내의 샤페론의 농도 감소
ㄹ. 단백질 합성 개시 인자의 불활성화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9.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실험 결과를 바르게 분석한 것은?

<보 기>

서로 다른 단백질 A와 B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기 다른 네 가지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에는 농도가 낮은 A와 B의 수용액을 사용하였으며 두 수용액은 상온에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였다. 각 실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ㄱ. A 수용액을 50℃로 가열했더니 불용성 응집체가 형성되었다.
ㄴ. B 수용액을 50℃로 가열했더니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70℃로 가열하니 불용성 응집체가 형성되었다.
ㄷ. A 수용액과 B 수용액을 섞어 50℃로 가열했더니 응집체가 생성되지 않았다.
ㄹ. ㄱ 실험의 결과로 생성된 응집체를 수거하여 세제 수용액에 녹인 후, 세제를 완전히 제거하니 A가 물에 녹아 있었다.

(단, 수용액의 농도에 의해 발생하는 효과는 무시하며, ㄷ과 ㄹ 실험 결과에서 얻은 최종 수용액 속의 A는 정상적인 기능을 하였다.)

① A의 응집체는 소수성 아미노산들이 분자 표면에서 내부로 이동하며 형성된다.
② B는 70℃에서 입체 구조의 변화가 없다.
③ A는 B에 대해 샤페론과 같은 역할을 한다.
④ 세제는 A 변성 단백질 간의 소수성 상호 작용을 차단한다.
⑤ A는 ㄹ 실험의 시험관 조건에서 리폴딩되지 않는다.

[10~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선 초기의 유학자들은 '이단을 물리친다'는 입장에서 도가 사상의 입지를 허용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한 부정적 입장이 여전한 가운데, 조선 중기에 접어들어 『노자(老子)』와 『장자(莊子)』에 대한 주석서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율곡 이이는, 이론적 고원(高遠)함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노자』에 담긴 수신적 덕목들은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노자』가 유학의 체계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선구적 해석을 제시하였다. 서명응이 『노자』의 비움과 낮춤의 도리를 양생(養生)과 처세의 가르침으로 삼겠다고 하고, 홍석주가 마음 수양법으로 수정(守靜)과 과욕(寡欲)에 주목하여 양생의 방법에 관심을 기울인 것 등은 이이와 상통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노자의 본의가 유학의 수기치인(修己治人) 체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닌데, 후세 사람들이 곡해하여 『노자』를 부정적으로 보게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노자와 장자를 구별하여 이해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서명응이 『장자』 내용의 황당함을 거론하여 『노자』와 차별화하고, 홍석주가 노자와 도가를 구별하면서 장자가 유학의 도를 비난한 점 등을 거론한 것은 이러한 이해의 대표적 사례들이다.

도가서 주석가들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인물은 박세당이다. 그는 노자 사상이 성인의 도(道)는 아니지만 그 사상을 배척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하고, 세간에서 읽고 있는 『노자』를 성인의 가르침 속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보며, 『노자』의 올바른 해석을 학문적 과제로 삼았다. 그는 겸허의 처세술을 노자의 장점으로 파악하고, '무(無), 무위(無爲)' 등을 유학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이해하였다. 하지만 '장차 빼앗으려거든 반드시 주어라'라는 말은 권모(權謀)에서 비롯되었으며, '공명(功名)과 이익에 머무르지 않는다'도 결국 공명이 자기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등 비판적 입장도 제시하였다.

한편, 박세당은 당시까지 장자 사상의 근본 성격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장자』를 주해한다는 입장을 제시하면서, 장자가 제자(諸子) 가운데 공자를 제대로 따르고자 했던 사람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그는 『장자』를 사회적 가치 실현과 밀접한 고전이라고 보고, 장자가 유학의 윤리 강상을 모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 삶의 세계와 동떨어지지도 않았다고 이해하였다.

(가) '친유가적 장자'로의 전환을 꾀했던 그의 『장자』 이해에서 주목되는 부분 중 하나는 「제물론」의 '성심(成心)'을 장자의 본의와 달리 해석한 부분이다. 장자는 본래 '성심'을 구성된 마음, 즉 피아간의 시비를 일으키는 선입견으로 파악하고, '성심'의 존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성심'이 모든 사태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았다. 삶의 과정에서 형성된 선입견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다른 사태나 타자를 인식하고 판단하면, 그 결과는 제한적이고 상대적이어서 상호 대립 과정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장자는 시비 대립이 결국 허구성을 면하지 못한다고 보고, 관조의 태도를 통해 시비 대립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박세당은 '성심'을 하늘에 정해진 이치가 나에게 부여된 것, 즉 인간에게 내재한 보편적 마음으로 해석하였다. 모든 사람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을 갖추고 있고, 이것에 따른 인식과 판단은 객관적이기 때문에, 시비 대립이 해소됨은 물론 인식의 동질성도 확보된다고 파악하였다. 그는 객관적 시비 판단을 통해 합리적 정치 행위의 실천적 근거가 마련된다고 보았다.

박세당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노자 사상과 유학의 친근성을 긍정하고자 『노자』의 반유학적 요소들을 의도적으로 생략하거나 그 의미를 적절히 약화하여 주해한 다른 도가서 주석가들의 태도와 상통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른 도가서 주석가들과 함께 그의 해석은 조선 중기 이후의 유학자들이 보수적 폐쇄성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다른 사상에 대해 포용성을 넓혀 갔다는 하나의 징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0.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u>않는</u> 것은?

① 도가서 주석가들은 노자 사상의 실제적 효용성보다 이론적 체계성에 주목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② 도가서 주석가들은 노자 사상을 당대의 지배적인 가치 체계의 범위 안에서 수용하고자 하였다.
③ 도가서 주석가들은 유학과 노자 사상이 근본 취지에서 통하는 점이 있다는 관점을 보여 주었다.
④ 조선 중기에는 도가 사상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주류를 형성하였지만, 무조건 배척과는 다른 시각이 드러났다.
⑤ 도가서 주석가들은 유학과 노자 사상이 충돌하는 지점을 은폐하여 유학과 노자 사상의 사상적 거리를 좁히고자 하였다.

11. 『노자』와 『장자』에 대한 박세당의 견해와 부합하는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노자』가 비록 성인의 도는 아니지만 그 책이 세상에 이미 통행하고 있으니, 그 뜻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 다음 세상을 거듭 그르치게 해서는 안 된다.
ㄴ. 도가라고 불리는 이들은 예(禮)로써 공명을 도모하고, 항상 치도(治道)를 말하나 수기에 근본하지 않는다. 이것은 노자가 꺼려서 멀리한 것이다.
ㄷ. 장자는 노자를 조종(祖宗)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노자의 학문은 세상에 나와서 대응하고자 하는데, 장자는 이와 같지 않다.
ㄹ. 공자가 존숭되어야 하는 까닭을 제대로 알고 있던 자로는 장자에 견줄 만한 사람이 없다. 따라서 배우는 사람은 마땅히 『장자』의 언외(言外)의 의미도 궁구해 알아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2.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장자는 제한적 인식에 따른 시비 판단은 허구성을 수반한다고 본다.
② 장자는 시비 대립의 원인을 인식 주체의 상대성에 초점을 맞추어 파악한다.
③ 장자는 시비 대립의 원인인 선입견이 새로운 인식을 통해 수정·보완되어 객관화된다고 본다.
④ 박세당은 객관적인 판단 근거의 근원적 설정이 시비 대립을 해소한다고 본다.
⑤ 박세당은 시비 대립에 대한 해결을 구체적인 현실 문제의 해결과 연관하여 파악한다.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최근 탈식민주의 문학 연구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 가운데 하나는 양가성 개념이다. 원래 양가성은 어떤 것과 그 정반대의 것을 동시에 욕망하는 것을 가리키는 심리학 용어인데, 탈식민주의 이론가들은 이것을 식민 상황의 일반적 특징으로 확장한다. 곧 식민자(colonizer)와 피식민자(colonized)의 정체성, 언어, 문화는 분열적이고 모순적이라는 것이다.

'분열된 정형'은 이러한 식민지적 양가성의 대표적 사례이다. 원래 정형이란 그 이미지가 고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식민자가 문학 작품에서 피식민자를 묘사할 때 그 정형은, ㉠ '충직한 거짓말쟁이'라는 말이 잘 보여 주듯이, 분열·모순되어 있으면서 양가적인 두 이미지 사이를 끊임없이 왕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피식민자의 유동하는 정형, 즉 '재현된 타자성'은 그것을 거울로 하여 형성되는 식민자의 정체성마저 불안정하게 만든다.

식민자가 피식민자를 본국에 맞게 교화하려 하거나 거꾸로 피식민자가 식민자에게 자발적으로 동화되려 할 때, 피식민자는 식민자의 문화, 언어 등을 모방하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피식민자가 식민자를 모방하려 해도 그 모방은 완전히 똑같은 복제가 되지는 못한다. 그것은 피식민자의 완전한 동화를 두려워한 식민자가 본국의 문화와 언어 등을 불완전하게 전달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둘이 놓인 맥락(역사, 전통, 언어 등)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피식민자의 모방은 거의 같지만 똑같지는 않은 '흉내 내기'가 될 뿐이다. 모방 과정에서의 차이는 피식민자의 의도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피식민자는 식민자의 문화와 담론을 모방하면서도 그것을 비틀어 조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차이를 발생시키는데, 이를 '전유'라 한다.

주목할 점은 신성하고 권위적이어야 할 식민자의 담론과 문화가 흉내 내기나 전유의 과정에서 피식민자에 의해 오염되고 훼손된다는 것이다. 탈식민주의 이론은 이런 이유로 흉내 내기나 전유가 모두 식민자에 대한 '저항'으로 기능한다고 말하며 저항의 외연을 확장한다. 그 때문에 피식민자의 의식적인 동화 행위도 차이를 낳는 무의식적인 저항이 될 수 있다. 식민자의 문학을 흉내 낸 ㉡ '검은 셰익스피어'는 차이를 통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식민자에 저항했던 것이다.

흉내 내기나 전유는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문화, 담론, 인종, 언어 등을 섞이게 만드는데, 이러한 섞임을 '혼종'이라 한다. 혼종은 피식민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식민자와 피식민자 사이의 상호 전염·변형을 통해 식민자에게도 나타난다. 혼종은 절대적이고 뛰어넘을 수 없는 차이와 위계를 상정하는 식민자에게 위협적이다. 식민자와 피식민자가 모두 그 정체성이 오염되고 유동적인 혼종이라면 자기 우월성의 근거도, 따라서 식민 지배의 근거도 뿌리째 흔들리기 때문이다.

한국 근대 문학 연구는 이러한 양가성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친일과 반일이라는 민족주의적 이분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식민 경험을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면서도 식민 지배를 비판할 수 있게 되었다. 민족주의는 피식민자의 정체성이건 식민자의 정체성이건 단일하고 고정된 것으로 상정하고 피식민자의 민족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이 식민 지배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주의는, 친일과 반일의 어느 한쪽으로 재단할 수 없는 일상적인 식민 경험에 주목하지

않았다. 탈식민주의 문학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 식민 지배에 대한 다양한 문학적 저항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1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은 식민자와 피식민자 사이의 차이를 드러내고, ㉡은 그 차이가 사라진 것이다.
② ㉠은 피식민자의 분열된 정체성을 보여 주고, ㉡은 식민자의 분열된 정체성을 보여 준다.
③ ㉠은 피식민자의 단일한 타자성을 드러내고, ㉡은 피식민자의 불완전한 모방을 드러낸다.
④ ㉠은 식민자에 의해 부여된 양가적 이미지이고, ㉡은 피식민자가 생산한 혼종적 문학이다.
⑤ ㉠은 피식민자가 식민자를 재현할 때 발생하고, ㉡은 피식민자가 식민자를 모방할 때 발생한다.

14. 민족주의와 탈식민주의를 비교하여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민족주의와 탈식민주의는 식민 지배를 비판·극복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
② 민족주의는 탈식민주의와는 달리 의식적 협력과 무의식적 저항이 공존할 수 있다고 본다.
③ 민족주의는 탈식민주의와는 달리 피식민자의 모방이 분열적인 혼종을 낳을 수 없다고 본다.
④ 민족주의는 탈식민주의와는 달리 식민자와 피식민자가 서로 다른 고정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⑤ 민족주의는 단일하고 고정된 주체에 의해, 탈식민주의는 분열되고 모순된 주체에 의해 저항이 가능하다고 본다.

15. <보기>는 일제 강점기에 창작된 소설의 일부이다. 위 글의 관점에 따라 <보기>를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 기>

숙부는 한 군(郡)의 수장으로서 조선어를 사용하는 게 위신에 관련된 일이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어로 연설하고 코풀이 선생에게 조선어로 통역하게 했다. 인식(仁植)은 숙부가 일본어 따윈 전혀 알지도 못하는 젊은 첩을 향해서조차 어찌나 득의양양하게, 그게 또 대단한 일본어라도 되는 양 청산유수로 떠들어 대는 것을 몇 번이고 봐 왔기 때문에, 숙부가, 누구 하나 일본어를 아는 사람 없는 화전민들을 향해, 굳이 통역을 대동하여 실로 애처로우리만큼 엉터리 일본어로 연설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특별히 놀라지도 않았다.

(중략)

숙부는 말했다.

"저 여우 같은 낯짝을 하고 있는 내무 주임은 말이다. 연설만은 나를 당해 낼 수 없어서 두 손 다 들었단 말이지. 아무리 자기가 일본인이고 상관인 나보다 실권도 월급도 많다고 잘난 척해도, 연설하는 것을 보면 내가 월등하다는 건 명백하니까."

① 숙부가 일본인을 흉내 내어 구사하는 엉터리 일본어는 혼종으로 볼 수 있다.
② 숙부가 구사하는 일본어는 원어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본어를 훼손한다고 할 수 있다.
③ 숙부는 일본어를 고집한다는 점에서 식민자를 자발적으로 모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숙부가 엉터리 일본어를 구사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식민자에 대한 저항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숙부가 구사하는 일본어가 식민자가 구사하는 일본어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숙부의 행위는 전유라 할 수 있다.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통 목조 건축물은 지붕과 목가구조의 두 부분으로 나뉜다. 지붕은 기와 등의 각종 마감재와 이를 받치는 서까래로 구성되고, 이 지붕을 떠받치는 목가구조는 서까래에 직접 맞닿는 도리와 이것을 지지하는 기둥과 보로 구성된다. 기둥은 지면에 수직으로 놓이는 부재이며, 도리와 보는 건물의 정면에서 바라보아 각각 좌우와 전후 방향으로 지면에 대해 수평으로 놓이는 부재이다.

가장 원초적인 목가구조는 기둥과 도리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건물을 측면에서 바라볼 때, 도리는 경사 부재인 서까래를 직접 받치고 각 도리에는 기둥이 연결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경사 지붕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상단에 있는 종도리 1개와 낮은 높이에 있는 전·후면 기둥 위의 처마도리 2개를 포함한 3개의 도리가 필수적이다. 이때 종도리와 처마도리의 높이 차이를 이용하여 지붕의 기울기를 결정한다. 측면은 종도리에 연결된 가장 긴 중심 기둥과 전·후면의 2개의 기둥으로 구성되며, 지붕의 하중은 각각의 도리와 기둥을 통해 분산되어 지면으로 전달된다. 이처럼 3개의 도리가 있는 목가구조를 3량가(三樑架) 구조라고 한다. 3량가 구조는 전통 목가구조의 기본이 되며 역학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측면은 3개의 기둥이 존재하는 2칸 구성이 된다. 이때 정면 역시 2칸으로 이루어진 건물을 상정해 보면 그 중앙에 종도리를 받치는 내부 기둥이 하나 놓이게 됨을 알 수 있다. 보는 이러한 건물 내부의 기둥을 없애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의도에서 도입되었다. 중앙의 종도리를 받치는 기둥을 지면까지 내리지 않고 마주 선 두 기둥의 상부에서 수평으로 놓인 보와 연결하여 실내 공간에서 내부 기둥을 없앤다. 여기서 보와 종도리를 연결해 역학적으로 내부 기둥의 역할을 하는 것을 대공이라고 하는데, 내부 기둥이 지지해야 하는 지붕의 하중은 대공과 보를 통해 남은 두 기둥으로 분산되어 전달된다. 보의 도입으로 내부 기둥을 없애는 감주(減柱)가 가능해지므로, 3량가 목가구조의 내부 종단면(정면 중앙의 기둥을 축으로 하여 건물을 건물 측면과 평행하게 수직으로 자른 단면)은 1칸 구조를 가지게 된다. 감주는 내부 기둥에 의한 공간의 분절성을 없앨 수 있지만, 2칸 구조에 비해 역학적 안정성이 다소 떨어진다.

내부 공간을 더 넓히기 위해서는 지붕의 면적도 그에 따라 넓어져야 한다. 서까래가 지탱할 수 있는 하중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종도리와 양쪽 처마도리 사이에 중도리를 하나씩 삽입하고 종도리와 중도리 사이, 중도리와 처마도리 사이에 서까래를 따로 두어 목가구조 및 지붕을 확장한 것이 ㉠ 5량가 구조이다. 이때 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종단면의 칸수는 늘어나게 되므로, 보를 도입하여 역학적으로 종도리를 받치는 종대공, 중도리를 받치는 중대공으로 내부 기둥을 대신하게 한다. 이를 통해 목가구조의 종단면에 있는 내부 기둥들을 제거하는 다양한 감주가 가능해지므로 건물 내부의 공간을 의도에 맞게 구성할 수 있다.

건물의 규모가 커지면서 지붕과 보를 포함하는 건축물 상부의 하중도 같이 늘어나므로 내부 기둥의 수가 늘어나게 된다. 이때 역학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규칙에 의해 내부 기둥을 배치한다. 건물의 외곽열을 이루는 각 기둥의 위치에서 마주 보는 기둥의 위치를 연결하면 건물 내부에 격자 구조를 상정할 수 있다. 정치법(正置法)은 각 연결선이 만나는 정확한 지점에 내부 기둥을 설치하는 방법으로서, 역학적으로 가장 안정된 구조를 만든다. 가령 정면 3칸, 측면 3칸의 건물에 내부 기둥을 둘 경우 모두 4개의 내부 기둥을 정위치에 둔다. 건물의 출입문이 있는 쪽을 전면, 그 반대쪽을 후면으로 부르는데, 내부 공간에 정치법에 의해 놓이는 기둥의 전·후면 배열을 각각 전열, 후열이라고 부른다. 기둥 전열이나 후열 혹은 전체를 열 단위로 없애는 방식이 감주법이다. 또한 특정 목적에 따라 공간을 나누기 위해서 기둥 전·후열을 약간씩 이동하여 설치하는 방식이 이주법(移柱法)이다. 감주와 이주는 정치에 비해 구조적으로 안정감을 떨어뜨리지만 다양한 공간 연출을 가능하게 해 준다.

16.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지붕의 경사는 서까래와 도리의 길이에 따라 정해진다.
② 대공은 지붕의 하중을 분산하여 기둥으로 직접 전달한다.
③ 중도리는 지붕의 확장에 따라 증가되는 하중을 분산한다.
④ 종도리는 목가구조의 최상단에 건물 측면과 평행하게 놓인다.
⑤ 감주는 공간 활용도와 구조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다.

17. ㉠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3량가에 비해 보 위의 목가구조가 복잡해진다.
② 보를 사용하지 않으면 종단면에 나타나는 칸수는 4칸이 된다.
③ 중도리의 위치를 조절하면 지붕 경사면의 모양에 변화를 줄 수 있다.
④ 보를 사용하면 종단면에서 보를 받치는 내부 기둥의 수는 0~3개이다.
⑤ 보를 사용하면 3량가보다 큰 규모의 연속적인 내부 공간을 만들 수 있다.

18. <보기>의 ㄱ과 ㄴ에 적용된 기둥 배치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ㄱ.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의 불전이 있다. 이 건물은 후면의 내부 기둥 중에서 중앙 2개의 기둥 사이에 불단을 두고, 불단 앞으로 중앙 출입문 쪽에 텅 빈 예불 공간을 만들었다. 그리고 일반 불전과는 달리 남은 네 기둥도 정위치보다 뒤에 배치하여 예불 공간을 더욱 넓게 만들었다.

ㄴ. 궁궐의 편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로 구성된다. 용상(龍床)은 건물 내부의 후면 중앙에 설치하고 내부 기둥을 중앙 출입문 쪽에 2개만을 설치하여 신하가 품계에 따라 자리를 정하는 지표가 되도록 했다.

① 정치법은 ㄱ에는 사용되었으나 ㄴ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② 전열감주법은 ㄱ에는 사용되었으나 ㄴ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③ 후열감주법은 ㄱ에는 사용되었으나 ㄴ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④ 전열이주법은 ㄴ에는 사용되었으나 ㄱ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⑤ 후열이주법은 ㄴ에는 사용되었으나 ㄱ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저께 장인과 통화했어."

문식은 새 담배에 불을 붙이려다 말고 라이터를 내려놓았다. 무슨 말을 또 하려는 것인가. 자영은 이제 문식이 무섭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마치 매일 스스럼없이 문안 전화를 하는 사위인 양 천연스런 저 태도. 문식과 자영이 버림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자영의 집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손님처럼 깍듯한 예의를 지키면서 방문하는 명절, 제삿날, 집안의 경조사……. 자네 왔는가. 잘 가게. 그 두 마디가 집을 나올 때까지 문식이 듣는 말의 전부인 그 방문을 지속시킨 것은 문식의 생각이었다. 문식은 그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지만 실은 앙갚음의 하나라고 자영은 짐작하고 있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빈틈없는 사위가 되는 것. 문식은 그 역할을 훌륭히 해내는 것처럼 보였다.

"별 이야기를 하지는 못했어. 그렇지만 다른 때처럼 그냥 끊지는 않으시더군."

문식의 말에서 자영은 그가 아버지에게 전임이 될 거라는 말을 했음을 안다.

"손주 보실 거라는 얘긴 미처 못 했는데 뭐라 하실지 궁금하네."

말끝에 문식은 후후 웃는다. 대단한 복수가 아니야? 문식의 웃음 속에 담긴 음흉함을 엿본 듯 자영의 얼굴이 왈칵 붉어진다. 그토록 아버지와의 화해를 바랐으면서 이 뒤틀리는 감정은 무엇인가. 자신이 한 말의 반응을 살피려는 듯 찬찬히 그녀를 응시하는 문식의 부드러운 눈을 자영은 오래 마주 볼 수가 없다. 그는 참으로 잘 견뎌 냈는데. 언제고 팽개쳐 버리고 싶었던 것은 오히려 내 쪽이었는데. 스물몇 해를 길들었던 안락함이 그리워 몸부림치며 불시에 아버지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싶어, 그것이 두려워 늘 잃을 것 없는 ㉠ 방을 꼭꼭 잠그며 살았는데…….

자영은 이제 그만 가자고 말한다. 휘황한 빛 아래서 그의 얼굴을 더 마주하고 있을 자신이 없었다. 커피 대신 마신 코코아의 들척한 기운이 메슥하게 목구멍을 넘어왔다. 그를 닦달할 수도 없다. 전임이 되는 것. 아버지와 화해하는 것. 아이를 가진 것. 이 모든 사실은 그의 공이며 이런 일로 그를 비난할 아무 이유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한다.

"그래, 일어날까?"

비칠, 하며 일어서는 자영에게 문식이 손을 내밀었다. 그녀를 향한 문식의 손은 희다. 부드러워 보이며 따뜻하기도 하리라. 그 손을 맞잡지 못하고 자영은 물끄러미 내려다보기만 한다.

(중략)

머쓱한 얼굴로 손을 거둔 문식이 문을 향해 걸어간다. 자영은 긴 숨을 내쉬고 그 뒤를 따라 찻집을 나왔다. 막 지기 시작하는 낙엽이 바람에 휩쓸리는 길을 그들은 묵묵히 걸어갔다. 전철역 앞 포장마차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이 문식의 창백한 옆얼굴을 훑고 지나간다. 시든 꽃을 거두는 꽃장수와 신문 판매대의 남자가 그들을 힐끗 돌아보았다. ㉡ 서너 걸음 떨어져 문식을 쫓으며 자영은 망설였다. 이것은 소리치는 것보다 더 나쁘다. 그가 저렇게 곧게 고개를 들고 걷는 것은 몹시 화가 나 있다는 뜻이다. 그에게로 다가가서 팔짱을 끼자. 어렵다면 아무 말을 하지 않은들 어떠랴. 그도 충분히 미안해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나…… 무언가가 자영을 망설이게 했다. 그녀의 안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억센 힘이 문식에게로 내뻗는 ㉢ 팔을 부여잡았다. 어스름한 전철역 안에 들어설 때까지도 자영은 그를 따라잡지 못하고 만다.

때르르르릉. 귀를 때리는 경고음에 이어 열차가 곧 도착한다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드문드문 서 있던 사람들이 몸을 움츠리며 선로가로 모여들었다. 문식은 힐끗 그녀를 돌아본다. 그 눈에 서린 간절함을 자영은 보았다. 찌든 생활을 떨치고 날아가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보았다. 자신을 향해 보이지 않는 손짓을 하는 그의 주머니 속의 손을 보았다. 이제라도 그가 손을 뻗어 온다면 자신은 그 손을 마주 잡아야만 할 것 같았다. 그 숨 막힐 듯한 흡인력을 자신은 어쩌지 못할 것 같았다. 내가 손을 잡지 않는다면…… 그는 내게로 올까. 와서 나를 부축해 줄까. 자영은 문식의 타오르는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는 절대로, 한 발짝도 뒤로는 물러서지 않을 듯 보였다. 아아, 저것이 문식이다. 어떤 것도, 아무런 사람도 그를 막을 수는 없다. 기차가 들어오기까지의 그 짧은 몇 초 사이에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문식을 향한 사랑을 느낀다. 그는 떠나갈 것이다. 내가 이 자리에 꼼짝 않고 서 있는다 할지라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드륵 열리는 문으로 사람들의 바쁜 그림자들이 빨려 들어간다. ㉣ 노란선 위에서 그녀를 바라보던 문식이 결심한 듯 문 안으로 들어갔다. 돌아서서 그녀를 보고 우뚝 선 문식의 얼굴이 커다랗게 확대되어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그 눈은 호소하듯 그녀를 향해 열려 있었다. 그러나 그 얼굴은 지쳐 보였다. 그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다시는 열리지 않을 기세로 문이 닫히고 이윽고 철커덕 소리 내며 열차가 달리기 시작했다. 문식의 호소하는 듯한 눈이 미끄러지듯 그녀에게서 멀어져 갔다. 환한 빛 더미들이 터널 속 깊고 긴 어둠으로 한칸 한칸 사라지는 것을, 마침내 마지막 잘린 빛이 삼켜지고 동굴 같은 어둠이 남는 것을 자영은 묵묵히 바라보았다. ㉤ 무덤가를 지나온 듯 스산한 바람이 불었다. 또 다른 열차의 도착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몸을 돌려 역을 빠져나왔다. 그리고는 어딘가 갈 곳이 있는 사람처럼 또각또각 걸어 나갔다.

- 서하진, 추일 서정 -

19. 위 글에 나타난 서술 방식으로 볼 수 <u>없는</u> 것은?

① 현재 시제의 문장을 활용하여 사건의 현장감을 높여 준다.
② 독백체의 문장을 활용하여 주인공의 내적 갈등을 드러낸다.
③ 짧은 호흡의 문장을 통해 주인공의 심리적 긴장 상태를 드러낸다.
④ 주인공의 시선을 통해 다른 등장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
⑤ 서술의 주체가 되는 등장인물의 교체를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보여 준다.

20. 위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문식'은 '아버지'에 대해 애증을 가지고 있다.
② '자영'은 '문식'에 대해 복합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다.
③ '자영'은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싶은 욕망을 지니고 있다.
④ '문식'을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는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⑤ '문식'은 자신이 선택한 삶의 방식에 '자영'이 따르기를 원하고 있다.

2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인물 간의 화해를 이끌어 내는 기능을 담당한다.
② ㉡ : 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를 공간적 거리로 나타낸다.
③ ㉢ : 상대방과 소통하려는 의지를 상징한다.
④ ㉣ : 두 인물 사이의 경계를 의미한다.
⑤ ㉤ : 주인공이 벗어나려는 상황을 상징한다.

[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중세 서유럽의 전형적인 농경지 소유 형태는 '흩어진 개방 경지'였다. 어떤 농민과 다른 농민의 경지 사이에 울타리가 없어서 넘나들 수 있으며, 한 농가의 경지가 한곳에 모여 있지 않고 작은 조각으로 나뉘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형태를 말한다. 인접한 경지 조각들은 같은 작물을 재배하여 파종과 수확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공동체가 강제하였다. 이는 수확이 끝나고 휴한기에 들어선 경지에 가축을 공동으로 방목하고 분뇨를 시비함으로써 지력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그렇다면 울타리만 치지 않으면 되지 경지가 흩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19세기 이래로 중세사 학자들은 공평한 쟁기질이나 비옥도의 차이를 감안한 평등한 토지 보유를 지향하는 공동체적 정서에서 그 이유를 찾았다. 1970년대에 매클로스키는 질문의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 매클로스키도 이전의 역사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경지가 한곳에 통합된 경우보다 흩어져 있는 경우에 농업 생산의 효율성이 더 낮았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더욱 비효율적인 경지 소유 형태가 어째서 그토록 오랫동안 지속되었는가?

매클로스키는 흩어진 경지 소유 형태의 효율성을 위험의 분산을 통한 보험 효과에서 찾았다. 그에 따르면 병충해나 기후의 차이 때문에 비교적 좁은 지역 내에서도 곳에 따라 경작의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위험을 고려할 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여기저기 흩어진 땅에 농사를 짓는 것이 흉작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경지가 흩어져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곡물 생산의 감소분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료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페노알티아는 곡물은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흉작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들에 의존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흩어진 경지 형태가 곡물 생산에 더욱 효율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농업에서는 시간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곳에 노동을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비가 오는 오늘은 여기에서 일하고 햇빛 좋은 내일은 저기에서 일하는 방식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한편, 달만은 흩어진 경지 형태가 지속된 이유를 공동 방목에서 찾았다. 개별 농가가 자신의 경지에 울타리를 친다면 다른 농가들이 공동 방목을 하기 어려워진다. 그런데 경지가 흩어지면 울타리를 치는 비용이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가 공동 방목을 통해 목축에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려는 것을 개별 농가가 방해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 흩어진 경지 형태를 채택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달만은 흩어진 경지를 ㉠ 반(反)공유자원(anti-commons)의 비극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으로 이해하였다고 하겠다. 이 문제는 여러 사람이 각자 사적으로 소유하는 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해야 효율적인 경우에 모든 소유자로부터 자원의 공동 이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원을 사적으로 이용할 경우에 자원이 남용되는 문제인 ㉡ 공유자원(commons)의 비극과 대조를 이루는 개념이다.

헨리 스미스도 공동 방목과 관련하여 흩어진 개방 경지를 해석하고자 하였는데, 달만과 달리 그는 이것이 ㉢ 반(半)공유자원(semi-commons)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사적 소유와 공적 소유의 성격이 공존하는 자원의

경우에는 사람들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에 따른 독특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중세 유럽의 개방 경지가 그 전형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곡물 경작은 소규모의 토지를 사적으로 이용하여야 효율적임에 비해 목축은 대규모의 토지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효율적이기 때문에, 동일한 토지가 계절에 따라 다른 규모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개방 경지는 때에 따라 사유지로도 사용되고 공유지로도 이용되기 때문에, 공동 방목을 할 때에 가축의 분뇨를 시비하는 것처럼 경작에 유리한 행위는 자신의 땅에 집중되도록 하고 가축이 뛰어다니며 땅을 훼손하는 것처럼 경작에 불리한 행위는 타인의 땅에 집중되도록 하고 싶은 유인이 발생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흩어진 경지 보유 형태였다는 것이다.

22.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u>않는</u> 것은?

① 매클로스키는 흩어진 경지 형태가 통합된 형태에 비해 곡물 생산의 측면에서 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였다.
② 매클로스키와 페노알티아는 모두 흩어진 개방 경지를 곡물 재배와 관련하여서만 설명하고 있지 공동 방목과 관련하여 해석하고 있지 않다.
③ 페노알티아는 곡물 생산의 측면에서, 달만은 목축의 측면에서 흩어진 경지가 통합된 경지보다 더 효율적인 경지 보유 제도였다고 생각하였다.
④ 헨리 스미스는 달만과 달리 농가들이 소유한 토지의 규모가 목축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고 생각하였다.
⑤ 페노알티아, 달만, 헨리 스미스는 모두 어떤 제도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면, 그 제도는 합리적 선택의 결과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23. 매클로스키의 주장에 대한 비판이나 반박이 될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공동 방목을 하지 않고 곡물만 재배한 지역에서는 흩어진 경지 보유 형태가 드물게 나타났다.
ㄴ. 농민들 사이에 토지 교환이나 매매가 활발해진 후에도 흩어진 경지 형태가 줄어들었다는 증거는 없다.
ㄷ. 잉글랜드와 프랑스 북부의 기후와 토양에서는 비교적 좁은 지역 내에서 흩어진 경지를 필요로 할 만큼 산출의 편차가 충분히 컸는지는 의문이다.
ㄹ. 각 농가가 경지를 통합하여 농사를 짓고 영주가 각 농가로부터 거두어들인 곡물을 흉작 농가에 배분해 주는 방식이, 각 농가가 흩어진 경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보다 더욱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2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은 자원이 지나치게 적게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임에 반해, ㉡은 자원이 지나치게 많이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이다.
② ㉢은 동일한 자원이 효율적 이용 규모가 다른,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③ ㉠과 ㉡은 자원을 소유한 사람이 그 자원을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가 강하여 발생하는 문제임에 비해, ㉢은 그러한 권리가 약하여 생기는 문제이다.
④ ㉠과 ㉢에서 '공유'는 '소유자들이 자원을 묶어서 공동으로 함께 사용한다'는 의미임에 비해, ㉡에서 '공유'는 '소유자들이 자원을 누구나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⑤ ㉠, ㉡, ㉢은 모두 자원의 소유와 이용 사이의 불일치로 인해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 유인이 유발되어 발생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25~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거나 심지어 목숨까지 바치는 행위를 이타적이라고 칭송한다. 그러나 심리적 이기주의에 따르면 이타적인 행위는 없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심리적 이기주의를 지지하는 논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논증은 우리가 이기적인 행위를 했든 이타적인 행위를 했든 우리는 단지 가장 원하는 행위를 했으므로 이타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뿐이므로 '이타적'이었다고 칭찬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논증은 이타적으로 행동하면 사람들이 만족감을 얻는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아무리 이타적인 행위라고 해도 결국에는 자기만족을 위한 행위라는 것이다.

㉠ 이런 심리적 이기주의의 논증에는 결함이 있다. 첫 번째 논증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도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생각에서 행동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논증도 역시 결함이 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한 동시에 그로부터 만족감을 얻는다는 사실은 그 사람이 만족감 때문에 그 일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다. 우리는 합격, 결혼, ㉡ 다른 사람을 돕는 일 등 다양한 일을 원하지만, 이 일을 성취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부수적인 산물일 뿐 우리가 얻고자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돕는 일을 아예 하지 않았을 것이다.

심리적 이기주의가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실제로 하고 있는가에 관한 이론이라면, 윤리적 이기주의는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가에 관한 규범적 이론이다. 심리적 이기주의는 우리가 언제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주장하지만, 윤리적 이기주의는 우리가 실제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든 안 하든 각 개인들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곧 윤리적 이기주의는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해서 윤리적 이기주의가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나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그런 행위를 금지하지 않는다. 또 윤리적 이기주의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든 상관하지 않는 이론은 아니다. 윤리 이론이라면 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관한 이론이어야 하므로,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각자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윤리적 이기주의는 실천적인 측면과 논리적인 측면에서 모두 심각한 문제점을 낳는다. 먼저 윤리적 이기주의는 현실적으로 이익의 충돌을 해결할 수 없다. 서로 대결하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승리는 그의 이익이지만 상대방의 이익에는 위배되므로 그는 상대방을 확실히 제압할 때까지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된다. 그런데 이것은 상대방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윤리를 자기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 대한 해결책이 결코 존재할 수 없으므로, 윤리적 이기주의는 수용하기 힘들다.

더 나아가 윤리적 이기주의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 A, B 두 사람의 대결을 생각해 보면, A가 자신을 제압하려는 B의 행동을 막는다면 A의 행위는 잘못된 행위이면서 동시에 잘못된 행위가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A는 B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막아야 하는데, 바로 그 행위가 A가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못인 것은 아니지만 동시에 B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잘못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윤리적 이기주의는, 윤리적 판단은 충분한 이유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윤리 이론의 기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성차별주의처럼 충분한 이유 없이 차별을 옹호하는 이론은 독단적이다. 윤리적 이기주의도 나의 이익을 다른 사람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나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독단적인 이론이 된다.

25.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심리적 이기주의는 욕구와 당위성 사이에 갈등이 있음을 인정한다.
② 심리적 이기주의와 윤리적 이기주의 모두 의무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③ 윤리적 이기주의는 우리가 만족감 때문에 행동한다는 것은 부인하지만, 원하는 일만 한다는 것은 인정한다.
④ 심리적 이기주의와 달리 윤리적 이기주의는 우리가 실제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⑤ 윤리적 이기주의와 달리 심리적 이기주의는 우리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26. ㉠처럼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을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타인을 돕는 행위는 이기적이지만 그 동기는 이타적이다.
② 타인을 돕는 일을 한 사람은 그 일로 칭찬을 받을 만하다.
③ 타인을 돕고 싶지 않지만 의무감 때문에 타인을 도울 때도 있다.
④ 타인을 돕는 데서 생기는 만족감 때문에 돕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⑤ 타인을 도움으로써 만족감을 얻는다면, 그 만족감은 돕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27. 윤리적 이기주의자가 글쓴이의 주장을 비판하고자 할 때,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누군가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막는다고 해서 꼭 잘못된 행위인 것은 아니다.
ㄴ.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 모든 사람이 조화롭게 공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적절한 윤리 이론이 아닌 것은 아니다.
ㄷ. 나는 나의 이익에 따라 행동해야 하지만 상대방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으므로, 상대방의 이익과 충돌 여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ㄹ. 사람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그런 대우가 타당하다는 것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실제적 차이가 당사자들 간에 존재하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을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8~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디지털 사진에 특정 식별자, 곧 워터마크를 숨겨서 삽입하는 것을 디지털 워터마킹(watermarking)이라 한다. 삽입된 식별자를 특정 방법으로 추출하여 사진의 저작권 증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워터마킹은 원본을 회전, 잘라 내기, 축소 같은 편집이나 압축을 하여도, 워터마크가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추출되어야 하는 강인성(robustness)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하며, 워터마크를 삽입하더라도 원래의 데이터 저장 형식이 바뀌지 않아야 한다. 또한 삽입된 식별자가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비가시성(invisibility)이 유지되어야 한다.

디지털 사진의 데이터는 가로, 세로의 격자 모양으로 배열된 화소의 밝기 값으로 표현된다. 각 화소의 밝기 값을 2차원 배열 형태의 데이터로 표현하는 방식을 공간 영역 방식이라고 한다. 공간 영역 방식으로 표현된 디지털 사진의 데이터에서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영역에 있는 화소들의 밝기 값을 적당히 변경하여 워터마크를 삽입할 수 있다. 가령 어떤 상표의 이미지 데이터를 특정 영역의 화소 값에 더하거나 곱하여 밝기 값에 포함하면 된다. 공간 영역에서는 화소 값에 직접 식별자를 삽입할 수 있기 때문에 워터마크 삽입과 추출에 필요한 연산량이 비교적 적고 식별자의 삽입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삽입된 워터마크는 특정 영역에 한정되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잘라 내기와 같은 간단한 영상 처리 또는 정보의 손실이 발생하는 데이터 압축에 의해서 쉽게 훼손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주파수 영역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다. 단위 거리당 밝기가 변화하는 정도를 공간 주파수라고 하는데, 공간 주파수는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공간적 이동에 따른 진동의 정도를 나타낸다. 디지털 사진에서 특정 방향으로 명암 변화가 자주 일어날수록 그 방향의 공간 주파수가 높게 측정되는데, 인접한 화소 사이에 밝기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날 때 공간 주파수는 최대가 된다. 이 원리를 이용하여 디지털 사진을 수평과 수직 방향의 2차원 평면에 대한 공간 주파수의 분포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2차원 배열로 표현되는 공간 주파수의 2차원적인 분포를 공간 주파수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디지털 사진을 주파수 스펙트럼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주파수 영역 방식이라고 하는데, 공간 영역의 사진 데이터는 푸리에 변환 등 수학적 변환식에 의해 손실 없이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되고 그 역과정도 성립한다.

주파수 영역에서 워터마크를 삽입하려면, 공간 영역의 데이터를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한 다음에 특정 주파수 대역에 식별자 데이터를 삽입하고, 그것을 다시 공간 영역으로 변환해야 한다. 특정 주파수 대역에 삽입된 식별자는 그 주파수를 포함하고 있는 공간 영역의 모든 화소에 분산되므로 사진 전체에 퍼져 저장된다. 이렇게 삽입된 워터마크는 사람의 시각에 쉽게 노출되지 않으면서도, 잘라 내기 등과 같은 영상 편집이 가해지더라도 남은 영역에 저장된 식별자 데이터에 의해 어느 정도 복원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공간과 주파수 영역 사이에 변환이 필요하므로 워터마크 삽입을 위한 연산량이 대폭 증가하게 되며, 특정 대역에 삽입된 식별자 데이터는 공간 영역에서 잡음(noise)의 형태로 나타나므로 사진 전반에 걸쳐 원본 사진이 흐려지거나 변형되는 등의 단점이 발생한다.

일반적인 사진에서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대부분의 정보는 저주파 대역에 몰려 있고, 사람이 사진의 내용을 인식할 때는 저주파 성분보다 고주파 성분에 상대적으로 둔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워터마크 삽입으로 인한 잡음의 양은 대역과 상관없이 동일하더라도 고주파 대역에서는 원본의 왜곡이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상 손실 압축 기술이 고주파 성분을 제거하여 전체적인 데이터의 저장 크기를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므로 고주파 대역에 삽입된 워터마크는 압축에 취약해진다. 주파수 영역에서 워터마크는 압축에 대해 강인성이 유지되도록 대부분 중간 대역에 삽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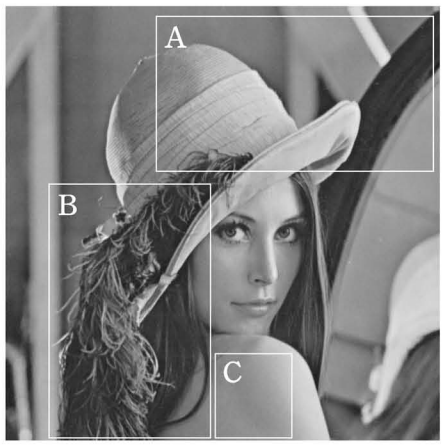
28.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삽입된 워터마크의 비가시성이 낮을수록 저작권을 보호하기 쉽다.
② 주파수 영역에서 공간 영역으로 변환할 때 데이터 손실이 일어난다.
③ 삽입된 워터마크는 공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에서 잡음 형태로 나타난다.
④ 주파수 영역에서 워터마크를 삽입하면 데이터가 저장되는 형식이 바뀐다.
⑤ 공간 영역의 워터마크 삽입에 필요한 연산량은 주파수 영역에 비해 많다.

29. 공간 주파수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공간 영역에서 화소의 밝기 값을 변경하면 주파수 스펙트럼이 변한다.
② 인접한 화소가 흑과 백을 교대로 가지며 반복될 때 공간 주파수는 최대가 된다.
③ 공간 주파수가 높은 영역에 워터마크가 삽입되면 원본의 가시적 왜곡이 줄어든다.
④ 공간 주파수 스펙트럼은 화소의 밝기 값에 푸리에 변환을 적용하여 얻을 수 있다.
⑤ 수평 방향의 단색 줄무늬가 조밀할수록 수평 방향의 공간 주파수가 높게 측정된다.

30. 다음 사진에 워터마크를 삽입한다고 할 때,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중간 주파수 대역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면, A보다는 B에서 워터마크의 비가시성이 낮다.

② 고주파 성분을 많이 포함하는 워터마크를 C의 공간 영역 데이터에 삽입하면 비가시성을 높일 수 있다.

③ 저주파 대역에 워터마크를 삽입한 다음, C가 제거된 영상을 이용하더라도 워터마크의 추출이 가능하다.

④ 중간 주파수 대역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면, A보다는 C의 화소 밝기 값에 식별자 데이터가 많이 저장된다.

⑤ 고주파 대역에 워터마크를 삽입한 다음에 손실 압축을 하면, B만을 이용하더라도 워터마크의 추출이 가능하다.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